



가정원예의 월동관리요령

신구전문대학 강사 김 세 원

가정원예라 하면 분재(盆栽), 관엽식물, 난, 분화(盆花), 테라리움(Terrarium), 수경원예(水耕園芸), 정원수 가꾸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분재(盆栽)와 실내식물(관엽식물 및 겨울철 분화)에 대한 월동관리요령과 농약사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

새순에 진딧물 발생 유의하고
꽃에는 물주기 피하도록

분재(盆栽)

분재로 쓰이는 수종은 대다수가 야생종이며 추위에 강한 것이다. 방한의 필요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작은 분속에 적은 분토(盆土)로 심

겨져 있어 분속의 온도는 낮아 동결하기가 쉽다. 야생하고 있는 식물들은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지온이 있으므로 보온의 필요성은 그다지 없지만 분재는 최저 기온이 영하 7℃ 이하 되는 곳에서는 방한이 필요하다. 방한방법도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있으므로 남부지방과 대구이북지방을 구별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방한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필히 해야 하므로 먼저 병충해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병해충의 구제방법

병해, 석회유황합제로 예방

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작은 해충(害虫)과 병원(病菌)이 나무의 수피(樹皮)와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가 겨울나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므로 이 전에 석회유황합제(石灰硫黃合劑)를 분무해서 병충해를 구제해야 하므로 늦어도 12월 초순까지 소독을 완료한다. 보통 상록수는 석회유황합제를 3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산포하며, 낙엽수류는 2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개각충 방제에 힘쓰도록

② 통풍이 잘 안되는 곳에 둔 분(盆)들을 살펴보면 개각충이 많이 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적게 붙은 경우는 칫솔 등으로 제거해도 무방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침투성이 강한 살충제를 살포해서 개각충을 구제한 뒤 보호실에 넣도록 해야 한다.

③ 진딧물은 발생이 심하면 그 다음에 그을음병이 유발되는데 목백일홍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 그을음병은 가지, 줄기 할 것 없이 나무 전체에 걸쳐 발생하며 이 때에는 석회유황합제 20배액을 붓이나 솔로 나무 전체에 발라 준다.

기온 올라가면 환기하도록

실내나 보호실(온실등)에 넣어 월동하는 동안에도 병해충은 발생하므로 방관하지 말고 주의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소나무류와 섬잣나무에 솜개각충과 검은 진딧물이 발생하는데 솜개각충은 겨울눈(冬芽) 근처에 발생하며 색깔이 희고 솜처럼 생겼으므로 쉽게 눈에 띄는데 통풍이 잘 안되면 발생한다. 그러므로 낮 동안 온도가 오르면 환기를 시켜 주어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살충제를 산포해서 구제해 준다.

검은 진딧물도 어린 가지 근처에 발생하며 색깔이 수피(樹皮) 색깔과 비슷해서 심하게 발생한 후나 또 그을음병이 오고 나서야 알 수 있는데 관수시나 겨울철 손질 때 주의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발생시에는 진딧물 방제약제 등을 산포해 준다.

새순의 진딧물 발생에 유의

⑤ 아파트나 실내등의 따뜻한 곳에서 월동을 시키면 3월이 되기도 전에 새순이 나오는데 실내라고 병해충의 발생이 없으리라 방심하면 안된다. 이 새순에 진딧물이 발견되면 따뜻한 날 밖이나 베란다에 내어놓고 약을 뿌려준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실내의 약한 광선하에서 자란 새순이라 추운 외기에 닿는다면 지박의 강한 광선을 오래 쬐게 되면 잎이 타는 염소현상(葉燒現象)이 일어나므로 큰 종이상자 속에 넣고 약을 뿌려 주던지, 아니면 비닐을 덮어 씌우고 위에 구멍을 조금내어 그곳에 분무기 주둥이만 넣고 약을 뿌려준다.

초봄 병해충 방제가 좋아

⑥ 이듬해 봄 새순이 나오기 전 쯤이면 지난 겨울 방제작업을 피한채 월동하고 있던 병해충이 기온의 상승에 따라 수목(樹木)의 벌어진 틈, 수피(樹皮) 밑에서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때는 월동후라 병해충(病害蟲)이 제일 약해져 있는 시기이다. 이것을 석회유황합제(石灰硫黃合劑)로 제거해줘야 한다.

(2) 방한관리

1) 남부지방

최저온도가 그다지 많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대구 이북지방에 비해 월동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① 햇빛이 잘 드는 실내에 둔다

② 분체로 땅에 묻고 그 위에 짚이나 왕겨를 덮는다.

③ 비닐 하우스를 만든다.

④ 온실용 방한덮개로 쓰이는 재료를 잘라서 분 전체를 감싸준다.

2) 대구이북지방

겨울철의 최저온도가 상당히 내려가므로 방한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분에 심겨진 것 뿐만 아니라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소재들도 매다수(진백, 아기사과, 한살 등나무, 등을 제외하고)는 비닐 하우스에 가식을 해야 한다.

① 햇빛이 잘 드는 실내에 둔다.

② 비닐 하우스를 만들고 비닐 하우스내의 땅에 분체로 묻는다.

③ 이중비닐 하우스를 만든다. 즉 비닐 하우스를 만들고 그 속에 30cm간격이 되도록 다시 비닐 하우스를 만든다. 이 때는 분을 땅에 묻을 필요가 없으며 진열대를 만들어 진열대 위에 두면 된다.

3) 월동관리중 주의할 점

① 겨울이 되어 식물이 휴면한다고 해서 전혀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수분은 흡수하므로 겨울철 물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분토의 표면이 80%정도 하얗게 마르면 관수를 한다. 수온의 영향은 없으므로 차가운 물을 주어도 무방하다.

② 실내에 둔 분재는 건조하기 쉬우므로 수반위에 두던지 엽수를 자주해준다.

③ 송백류(松柏類)는 되도록이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두도록 한다.

④ 온대지방의 수목은 반드시 휴면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나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 두거나 난방기구 가까이 두지 말고 제일 찬 곳에 둔다.

⑤ 매화, 명자, 영춘화 등은 실내에 두면 꽃이 일찍 피는데 실내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꽃 색깔이 제대로 나오며, 찬 곳에 두어야 오래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실내식물

봄부터 잘 생육해 나온 실내식물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계

절이 되었다.

원산지가 대개 열대나 아열대이므로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의 월동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기르고 있는 식물의 성질을 잘 알고 그것에 맞는 관리를 해서 새봄을 맞이해야겠다.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관리의 요령을 서술해 보자.

(1) 내한력(耐寒力)을 기른다.

뿌리의 발달이 좋아 원기있게 자란 식물은 일반적으로 내한력이 강하다. 관리가 나쁘고 뿌리의 발달이 좋지 못한 식물은 내한력이 약해 겨울의 저온(低温), 일조부족(日照不足)에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을이 되면서 비배관리(肥培官理)와 병해충의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2) 온도(溫度)

실내식물을 월동시킬 경우 최대의 급소는 온도다. 식물이 요구하는 온도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열대성(熱帶性) 식물은 25℃~30℃, 아열대성(亞熱帶性) 식물은 20℃~25℃를 최저온도(最適溫度)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주택구조나 난방시설로는 최저온도를 맞출 수 없으므로 기르고 있는 식물에 필요한 최저온도(最

低溫度)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 중 제일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새벽의 최저실온(最低室溫)을 체크해서 관상장소와 식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확실한 월동을 할 수 있다. 또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 가므로 추위에 약한 종류는 높은 위치에 두든지, 부엌은 요리를 한다던지 해서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므로 다른 곳에 비해 온도가 좋으므로 부엌에 두는 것도 좋다. 아부래도 환관 쪽은 외기와 접촉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하루의 최고·최저기온의 차이가 15°C 이상되면 식물이 해를 입으므로 그 차이가 15°C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켜 주는 데 낮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 가면 환기를 시켜 온도 차를 줄여 준다.

(3) 습도

식물은 증산작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잎이 마르고 탈수(脫水)가 된다. 대부분의 실내식물은 상대습도가 70~90%가 되는 곳에서 성장되어지므로 특히 겨울철의 실내의 건조는 문제가 된다. 실내식물의 종류에 따라 습도의 적응성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대습도가 30% 이상이면

대부분의 식물은 적응할 수 있다.

20%이상 유지되도록 유의

문제는 겨울철의 난방장치에 의해 습도가 20%까지 저하(低下)되는 경우와 공기의 유통이 적은 아파트내의 건조는 인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물에 분무를 해주는 것도 습기를 보충해 주는 방법이지만 일시적이므로 환기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식물의 주변에 물을 떠 놓든지, 수반에 잔물을 깔고 물을 부은 뒤 화분을 올려 놓아 습도를 공급해 준다.

(4) 물주기

겨울의 물주기는 온도 다음으로 중요하다. 물주는 요령에 의해 월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온도로 환산하면 3~5° 정도 높게 유지하는 것에 필적한다.

겨울동안은 대부분의 실내식물은 적은(低溫) 때문에 생육활동이 정지되고 실내에 들어오는 광선의 양도 적고 약한 환경이 되므로 수분의 필요량은 그다지 많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분토(盆土)의 표면이 완전히 건조한 후에 배수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한 관수를 해주는데 오전중 실온(室溫)과 같은 온도의 물을 주도록 한다.

오전중 실온정도의 온도로 물주기 실시

그리고 1~2월과 같이 가장 추운시기에는 관수를 한 저녁이면 분토의 표면이 건조할 정도로 해주는 것이 내한성(耐寒性)을 증대시켜주고 온도를 높여준 것과 같은 효과가 된다.

(5) 식물의 성질을 알고 놓는 장소를 결정한다.

집안에서는 남쪽 또는 남서면의 방은 햇빛이 잘 들어서 낮동안은 따뜻하고 밤이 되어도 이 온도가 늦게까지 남아 가장 좋은 장소이다.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곳은 분속의 수분의 정체가 길고 오랫동안 습한 상태가 되므로 분속의 온도를 내리는 요인이 되며 또 뿌리를 썩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6) 분화(盆花)의 관리

겨울철 분화식물이라면 아잘레아, 프리물라, 시클라멘, 거어베라, 시네라리아, 히야신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꽃피는 식물에게는 많은 햇빛이 필요로 하게된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햇빛이 많이 드는 창가에 두고 관찰한다.

꽃에는 물주지 말도록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꽃이 빨리 개화하므로 되도록 너무 고온이 되지 않도록 때때로 환기를 해준다. 습도를 높혀주기 위해 분무를 할 때는 꽃은 피해서 해야만 오래도록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다. 또 꽃이 진 것은 빨리 빨리 제거해 주어야 병해(病害)를 예방할 수 있다.

(7) 보온(保溫) 방법

① 이중분(二重盆)에 의한 보호
식물이 커서 전체를 보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을 보온해서 지온(地溫)의 저하(低下)를 막는 것도 유효하다. 분을 보온성이 있는 보온덮개 또는 공기주머니가 있는 비닐(포장재료)로 싸서 더 큰 분에 버미큐라이트로 심는 방법이다.

② 어항을 이용

쓰지않는 어항속에 추위에 약한 작은 분들을 넣고 뚜껑을 해주면 훌륭한 유리온실이 될 수 있다.

③ 종이상자에 의한 보온

온도가 떨어지는 야간에는 식물을 종이상자에 넣어 낡은 커튼 또는 담요 등으로 덮어 준다. 이때 상자를 이중으로 하면 보온효

과가 높다.

(8) 병해충의 방제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실내식물에도 의외로 병해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에서 재배하면 발생이 적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연중 내내 발생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습관에 따라 겨울은 추우니까 병해충의 발생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방과 방제를 철저히 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식물을 길러 보도록 하자. 실내식물에 나타나는 병해충을 살펴보면 응애, 깍지벌레와 같은 충해(虫害)와 흰가루병, 반점병, 회색곰팡이병과 같은 병해(病害)를 들 수 있는데 병해는 지오판제나 만코지 수화제를 매

월 1회 산포해주면 예방이 가능하다. 충해가 문제다. 응애는 아주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잎 뒷면에 발생하므로 관찰이 어렵다. 깍지벌레도 아이비류나 신답서스와 같이 잎 뒷면에 발생하고 또 몸이 보호색을 띄기도 하여 발견하기가 어려워 꼭 발생이 많이 된 후에야 알게 된다. 응애가 발생하면 잎의 색깔이 퇴색하고 잎 표면에 반점이 생기면 깍지벌레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소에도 주의해서(관수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응애는 고온건조하면 발생이 되고 깍지벌레는 통풍이 나쁜 경우 발생하기 쉽다.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구제를 한다.